

# “후학 양성이 한국불교 미래 위한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은 ... 1976년 인천 부용암에서 육년승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통도사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동국대 철학과와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일본 릿소(立正)대학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고마자와(駒澤)대학에서 화엄학을 공부해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승가대 불교학과와 봉녕사 승가대학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비구니연구소 소장, 화엄학회 회장, 사카디타 코리아 상임공동대표, 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포교원 포교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화엄관법과 기초적 연구> <화엄경심지품개설> <진리의 숲 법구경 이야기>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공저)> 등 다수가 있다. 또한 현대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에는 제6회 대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빈낙도의 삶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에게도 몇 가지 애환거리가 있다. 바로 본인의 몸이 아파 치료비가 필요할 때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때다. 사찰 소임을 맡지 않고 무소유의 삶을 사는 스님들일 수록 뒷바라지하는 불자들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주로 불교를 접한 학인 스님들에게 이러한 고민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최근에는 중 단차원에서 종립대학에 진학한 사미·사미니 스님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스님이 무슨 공부냐'며 야단만 맞던 시절에는 수많은 학인 스님들이 이런 남모름 고민을 안고 살았다.

이런 학인 스님들에게 지원을 꾸준히 아끼지 않은 한 스님이 있다. 바로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이다. 3월 24일 김포에 위치한 중앙승가대에 가는 길은 마음을 저절로 차분하게 했다. 안암동 개운사 시절을 거쳐 김포 풍무동으로 옮긴지 15년, 산 속에 자리한 대학은 고요하기만 했다. 간간히 들리는 스님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뒤로 산세를 따라 세워진 수행관 앞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본각 스님이 기자를 맞았다. 스님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학인 스님들을 돕는 화엄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20년간 학인 스님들 위한 장학회 운영**  
본각 스님이 화엄장학회를 운영한 것은 1995년 3월 중앙승가대대학의 안암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20년간 장학회... 482명 이수 총 3억여원**  
**1년에 두번씩, 40회 자비교육 나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대학의 요청으로 대학 기숙사 보타사를 맡으면서 부터였다. "비구니 학인 스님이 거주한 보타사도 염연한 사찰이기에 많은 절 살림이 있습니다. 법당 부전을 비롯해 절에 불을 때는 화전, 청소 등 모두 학인 스님들이 담당하는데 학내와 달리 이런 소임에는 장학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학인 스님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장학회를 만들게 됐어요."

스님은 보타사 신도들과 인연이 있는 불자들을 한데 묶어 장학회를 결성했다. 학인 스님들을 돕는다는 말에 선뜻 동참자들이 늘었다. 본각 스님은 "첫 장학금 수여식 날, 심시일만 힘겨운 만들어낸 벅찬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20년 동안 화엄장학회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이수한 이들은 482명, 금액은 2억 9400만원에 달한다. 2000년부터는 환경이 불우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까지 장학 혜택을 받았다.

"십시일반으로 출발했지만 신기하게도 '꽃간'이 비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6개월간 모아주신 장학금을 3월 불 장학금 수여식 때 전부 드리고 나면, 다시 차곡차곡 채워졌어요. 모두 불자님들 덕분

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마흔 번의 자비공덕을 함께 쌓았습니다."

**아버지 49재 인연이 6남매 출가의 복으로**  
본각 스님이 학인 스님들을 돕게 된 것은 발심한 후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불법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스님은 형제자매가 함께 동진출가한 후 청소년기 환속 후 발심, 다시 재출가하기 까지 많은 일을 겪으며 이러한 발심을 기웠다.

1952년 스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친이 급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큰 오빠인 천재 스님이 먼저 출가를 하며, 스님의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천재 스님이 출가하자 1년 뒤 큰언니 혜근 스님도 출가의 뜻을 비쳤고 이에 본각 스님의 어머니는 가족 모두의 출가를 결심하고 태백산 흥재사로 입산했다.

성철 스님의 말제자가 된 천재 스님을 비롯해 '성종'이란 법명을 받고 입적한 모친과, 큰 언니 혜근 스님, 둘째 언니 적조 스님, 셋째 언니 보명 스님, 둘째 오빠 삼소 스님까지 온 가족이 출가의 복을 지었다.

모친의 입적 이후 세 살의 나이에 스님은 인천 부용암에서 육년(六年) 스님을 은사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성철, 일타(지족암), 법명을 지어 준 전강, 혜암(수덕사), 춘성, 석남사 인홍, 봉녕사 묘엄 스님 등에서 배움의 길을 닦았다.

"은사 스님은 저에게 어머니 이상인 분이셨어요. 은사 스님은 저를 묵묵히 지켜봐주셨지요. 청소년기에 세상을 경험하겠다고 나설 때도 나무라기는커녕 도와주셨어요. 이런 은사 스님의 따뜻한 가르침에 불교의 참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스님은 동국대서 서양철학을 전공한 뒤 다시 출가했다. 운문사 강원에서 내전, 치문, 대교, 사집 등을 공부하면서 환희심을 느꼈고, 평생을 공부에 매진해야겠다고 발심했다. 봉녕사에서 3년간 중강 소임을 맡다 1982년 가을 일본으로 건너가 <화엄경>에 등장하는 많은 보살들의 활동상에 이끌려 화엄학을 전공했다. 도쿄 릿소(立正)대 석사, 도쿄 고마자와(駒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1991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로 강의의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은사 스님에게 약속했습니다. 유학을 갈 때 돌아와 꼭 강단에 설 테니 그때까지 살아계서 달라고요. 다행히 제가 돌아와 강단에 서는걸 보셔서 마음의 짐은 덜었지요. 학인 스님들을 돕게 된 것도 은사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장학으로 인연을 맺은 대학생들도 사회에서 자리 잡은 뒤 재능 기부로 회향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뿌리면 열매가 됩니다."

**인재양성에 우리사회 미래 있어**  
스님은 불교가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 환속기간 동안 외부에서 스님과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느낀 것이 소중한 경험이라고 스님은 평

소 지론을 밝혔다.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은 불교에 대해 고리타분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본격적으로 불교를 접한 학생들은 불교가 논리적이면서도 종교를 넘어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밖에서 오히려 불교의 소중함을 더욱 더 느끼게 됐고 서양철학을 공부하며 불교의 수승함을 알게 됐습니다. 경쟁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현재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삶,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 등 불교 속에는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알려야 해요. 특히 실천을 강조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불교적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하겠지요."

이런 원력 하에 스님은 승가대에서 화엄학을 가르치는 한편 주석하는 곳 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장도 함께 열고 있다. 흥은동 금강사에서 2006년부터 6년간 방과 후 교실을 열어 초등학생을 지도하기도 했으며, 2010년 교양 금문사로 사찰을 이전 한 뒤부터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함께 60사 단 권을무대서 매주 장병들을 대상으로 법회와 강연에 나서고 있다.

"문제가 있는 이도 한 마음만 돌이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비롯해 어려서부터 공동체정신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스님들은 교육자로서도 사회적인 몫을 가지

**젊은이들 위한 교육의 장 펼쳐**  
**금강사에서 2006년부터 6년간 방과후 교실**  
**2010년 금문사 이전... 군 장병 대상 강연**

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가르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 구별이 없습니다."

**회향 속에 피어나는 화엄의 꽃**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만난 선지식은 한 사람이 아니라 천세 명의 보살들이었다. 화엄학을 전공한 스님이 승가대 학인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이다.

"<법화경>이 '일불승' 즉 한 송이 백련을 상징한다면 <화엄경>은 일 년 내내 피는 수많은 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타파하고 깨치는 것이 화엄행자의 도리입니다. 꽃을 보살행에 비유해서 일체 모든 중생의 가치를 꽃으로 즉 보살로 승화시키는 것이 화엄경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자신이 공부한 공덕을 일체중생의 공덕으로 돌리는 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향이 자 보살사상"이라고 했다. 스님이 비구니 스님들의 행장기와 근현대 자료를 총망라하는 아득한 일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일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 최고의 불사



본각 스님(왼쪽 세번째)이 비구니연구소 회원 스님들과 출간을 준비 중인 비구니사 자료집을 정리하고 있다. 스님은 화엄장학회를 통해 1999년부터 줄곧 연구소 연구지원비를 후원하고 있다.



2013년 인도에서 열린 사카티타 세계여성불자대회에 한국 대표단과 함께 참가한 본각 스님(왼쪽 네번째). 스님은 현재 사카티타 코리아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본각 스님(오른쪽)이 3월 8일 고양 금륜사에서 열린 화엄장학회 20주년 기념법회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08년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불교진흥원이 수여하는 제8회 대원상 승가부문을 수상한 본각 스님(왼쪽 세번째)

로 삼은 것도 여기에 기반한다. 1999년 겨울, 대한매일신문사의 <근세 여성 종교 지도자 명감>에 들어갈 자료를 요청 받은 스님은 비구니사 정리에 원을 세웠다.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들에 관한 자료는 ‘승적부’가 고작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사의 요청자료인 500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00명이라도 자료를 모아 보자고 생각해 수행관에 함께 사는 97학번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매진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스님은 2000년 ‘한국비구니연구소’를 개소하고 자료 수집과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2003년에 1차 성과물인 <신문 기사로 본 한국 근현대 비구니 자료집>(전6권)과 <비구니와 여성 불교>(전6권)를 비롯해 비구니 자료를 지속적으로 펴냈다.

학인 스님들과 함께 1000명에 가까운 비구니 스님들을 전국 사찰에서 취재하고, 자료화 작업을 위해 밤을 새기도 했다. 꾸준한 노력에 ‘비구 스님 연구기관도 없다’며 정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학 측도 2014년 비구니연구소를 정식기관으로 인정했다.

2004년에는 세계여성불자대회인 제8회 사카티타 대회의 추진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원활히 치러냈으며 이후

## 비구니사 정리에 큰 원 세우다

### 2000년 ‘한국비구니연구소’를 개소

#### <근현대 비구니...> <비구니와 여성불교> 출간

공동대표를 맡아 매 대회마다 스님들을 이끌고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불법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으로**

정년이 2년 남짓 남은 스님은 퇴임 후 금륜사에서 농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스님의 농부라는 표현은 불법의 씨를 뿌리는 포교와도 맞닿아 있다.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다섯 씩 연구실에서 연구와 강의에서 매달리던 데서 보다 자유롭게 대중과 접촉하겠다는 의지다.

스님은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울리 한다면 불교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라 여긴다. 금륜사 일대에 주말농장을 개척해 고양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찰로 오게 하고, 북카페 ‘다룬침터’를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주말에는 기도와 함께 요

가강좌 등 마련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불교도 시대에 발맞춰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절도 바쁜 현대인들이 잠깐 들려 차 한 잔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흥흥동 금륜사에서 교양으로 사찰을 옮기며 이어오던 방과후교실을 문 닫게 돼 마음 한편에 짐이 남아있는데 사찰이 안정화 되면 ‘방과후교실’도 다시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님은 2015년 불교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지만 스님들이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답답한 일이 많지만 한 명이라도 불교를 좋아하는 불자가 있으면 승려가 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승려가 ‘내 앞에 불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분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갖춘 스님들이 중심이 되고 불자들이 뭉쳐 부처님 법을 널리 펼쳐야 합니다.”

중앙승가대 마당에는 쌀쌀한 3월 날씨 속에도 겨우내 움츠렸던 푸른 잎들이 솟아 오르고 있었다. 스님의 말 속에서 긴 겨울을 겪고 있는 불교에도 새 봄이 찾아옴이 느껴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전법일기

### 사회와 함께하는 사찰 만들기

바자회부터 재정 공개까지

2015년 올미년 3월도 막바지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원각사가 자리한 서울 관악산 곳곳에는 봄꽃들이 가지개를 피며 봄이 왔음을 알린다. 산골에서만 살았던 내가 원각사에 온지도 이제 2년이 되어간다.

도심사찰에서 초임 주지를 맡으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이 봉사와 포교였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간 원각사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저조한 편이었다. 그래서 신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소통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그간 소정의 성과도 있었다.

원각사 주지로 부임해서 처음 시도한 것은 ‘자비나눔 바자회 장터’였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바자회 장터를

도회장은 어느 날 이런 말을 내게 건넸다.

“예전 젊었을 때에는 시간과 건강이 허락해서 절에서 봉사와 포교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요즘은 건강이 이전 같지 않아서 많은 도움을 못 드리고 있지요. 그래도 신도들과 함께 봉사하니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원각사 발전과 지역 포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할게요.”

신도회장의 말이 이제 2년차 초임 주지인 나는 고마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2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신도들과의 소통이 이제는 이뤄지고 있다. 이제 힘들어도 즐겁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는 요즘 원각사가 서울 관악구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포교 활성화에 별 다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나는 지금도 사찰과 신도의 믿음과 신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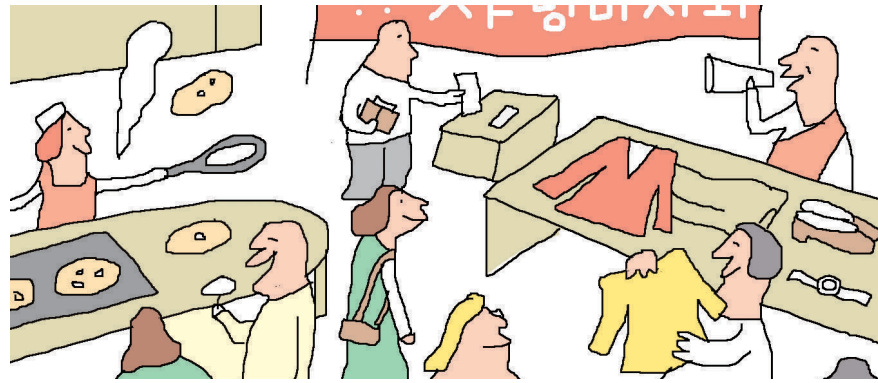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열어 신도들이 기증한 헌 옷과 각종 먹거리, 토속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했다. 그렇게 생긴 일부 수익금은 지역 소년, 소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독거노인 분들에게는 쌀을 지원했다.

“지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로 이어졌다. 이 역시 신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결론이다. 그래서 원각사에서는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효행 잔치를 연다.

신도들과 소통하면서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시작한 원각사는 청소년들과 공무원 불자들의 생활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관내 관악경찰서의 소년계 행사들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비행 청소년 상대로 토크스튜디오를 운영한 것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관악경찰서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원각사는 관악구청 공무원 불심회 협회를 주관하며, 공무원 불자들과도 즐거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변화하는 사찰의 모습은 신도들의 신뢰가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사부대중 화합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원각사 신

생기면 자연스럽게 포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절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원각사 사찰 회계,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에 2회에 걸쳐 신도회 임원들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노력은 지난해 제9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중무지도 감사에서 우수 사찰 선정이라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지역 포교를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2년 동안 뼈에 사무치게 체했다. 모든 것은 ‘소통’의 문제였다. 하지만 신도와의 소통은 사찰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과 ‘소통’하니 사찰의 위상도 높아졌다. 이런 경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수행자로서 귀중한 경험이자 자산이 되고 있다.

오늘도 대중전의 부처님께 기도도 드린다.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위치가 바뀌지는 부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린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모두가 좋은 인연이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 2559년 석가탄신기념

###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에 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특별한정판으로 생산되며 주문에 의해서 사찰에만 공급합니다.

■ 가격 : 15,000원 (초파일 이후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되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ihwa.com](http://www.nihwa.com)  
02)3663-6777

**능인향당**

##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 배송

###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 고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 950,000원
-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인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헬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디슬기액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미술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환관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을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키चे트 매트 금액 : 330,000원
- 동수종편(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결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